

『說文解字』讀若과 漢字의 상관성 연구*

오제중**

<目 次>

1. 緒論
2. 『說文解字』讀若 이론 再考
3. 『說文解字』讀若과 漢字의 관계
4. 『說文解字』讀若의 字例 분석
5. 結論

1. 緒論

漢字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필수 요소는 形音義이다. 이에 따라 역대 中國에서 전통 小學의 분류법에 의한 다양한 字書와 韻書 그리고 訓詁書가 발전을 거듭하며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字書인 『說文解字』¹⁾에서는 字形 및 字義 파악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속에 수록된 形聲字와 重文 역시 字音 연구에 있어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許慎의 언어학 이론 가운데 讀若은 『說文』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注音 형식으로 당시의 漢字音を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물론 『說文』에는 從某某聲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량의 形聲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某聲에 해당하는 諧聲字를 통해 해당 한자의 字音を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字形의 구조 분석 및 六書 분류를 위한 것으로 字音を 표기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기에는 부족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하 許慎의 『說文解字』는 『說文』으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는 『段注』로 줄여 적는다.

하다. 그러나 이것에 비해 被讀若字의 발음을 讀若字로 표기하는 讀若法은 『說文』의 字음을 표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說文』에 수록된 讀若은 '讀若某'의 기본적인 형식 이외에도 '讀若某同'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讀若은 표면적으로는 同音字로 字음을 표기하는 간단한 이론이지만 讀若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異見이 남아있다. 許慎이 讀若法을 사용한 이래로 『說文』 연구의 전성기인 清代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견해 차이의 핵심은 讀若이 순수하게 字음 표기를 위한 體例인지, 혹은 字音과 함께 字義와의 연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일 字音과 字義의 연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注音 과정에서 우연히 字義의 연계성을 가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經典의 用字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字음을 함께 표기하게 된 것인지 등과 같은 許慎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생긴다.

이와 같은 讀若의 실체와 漢字 발전 과정에서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역대 학자들의 讀若 이론을 분석하여 『說文』 讀若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考證學이 흥성했던 清代는 『說文』 연구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清代 학자들을 위주로 『說文』 讀若에 대한 견해를 분류하고 字例를 통해 그들의 이론을 검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讀若의 작용을 분석하여 문자 발전 과정에서 漢字와의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가운데 古今字는 古今의 字義를 구별하기 위해 등장한 일종의 古今異字 현상으로 한자 발전 과정의 대표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讀若과 漢字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古今字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讀若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표적인 讀若의 字例를 古今字의 내용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讀若字에 포함된 古今字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讀若과 漢字의 상관성에 관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讀若이 漢字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文字學과 訓詁學 등 중국의 전통 언어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위상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최종 연구 목적이다.

2. 『說文解字』讀若 이론 再考

『說文』讀若의 형식은 讀若某 이외에 讀若某某之某, 讀若某同, 讀與某同 등과 같이 다양하다. 『說文』에 讀若이 등장한 이래로 이것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²⁾ 먼저 讀若을 순수한 字音 표기의 방법으로 보는 견해, 다음으로 字義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注音과 字義 연계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주장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의 讀若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부분 清代 학자들의 개념적 토대 위에서 일궈낸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清代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讀若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주목할 것은 讀若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清代 학자들의 이론을 검증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讀若字 字例를 이용한 분석 과정을 통해 일부 再考가 필요한 이론을 검증하기로 한다.

1) 讀若의 表音 이론

『說文』讀若은 被讀若字의 字音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字音의 관련성을 가지고 字義를 통하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讀若을 순수 注音符로 여기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清代 段玉裁이다.

凡言讀若者, 皆擬其音也. 凡傳注言讀爲者, 皆易其字也. 注經必兼茲二者, 故有讀爲, 有讀若. 讀爲亦言讀曰, 讀若亦言讀如. 字書但言其本字本音, 故有讀若無讀爲也. 讀爲讀若之分, 唐人作正義已不能知, 爲與若兩字, 注中時有譌亂.³⁾ (무릇 '讀若'이라는 것은 모두 그 음에 의거한 것이다. 무릇 경전의 주석에서 '讀爲'라고 하는 것은 모두 글자를 바꾸는 것이다. 경전의

2) 楊宏, 『『說文』讀若性質研究綜述』, 33-34쪽. 분류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각각 明音派, 通字派, 兼有派 혹은 注音派, 通字派, 綜合派 등으로 표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3) 段玉裁, 『段注』, 一篇上, 十二, 隸下.

주석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서 ‘讀爲’와 ‘讀若’이 있는 것이다. ‘讀爲’는 ‘讀曰’이라고도 하며 ‘讀若’ 역시 ‘讀如’라고도 한다. 자서는 단지 그 본자와 본음을 말하므로 ‘讀若’이 있고 ‘讀爲’는 없는 것이다. ‘讀爲’와 ‘讀若’의 구분은 당대 학자들이 경전의 주석인 정의를 지을 때 이미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함에 ‘爲’와 ‘若’ 두 글자가 주석에서 뒤죽박죽일 정도였다.)

『凡言讀若者, 皆擬其音也.』라는 첫 구절을 통해 段玉裁는 讀若字와 被讀若字 사이의 音韻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동시에 讀若을 注音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經典의 通假와 같이 글자를 바꿔서 字義를 풀이하는 ‘易字’ 기능의 讀爲와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段玉裁는 讀若과 讀如 모두 擬音의 일종으로 注音과 字義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로는 『說文』은 「但言其本字本音」과 같이 本字와 本音を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讀若의 역할은 字音을 擬音하여 本音を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讀爲는 經典의 注釋에서 漢字의 상호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讀若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讀若의 기능을 ‘擬音’으로, 讀爲의 기능을 ‘易字’로 확정하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개별적 특징만을 강조한 것이다. 字例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說文』, 「範, 範輓也, 從車範省聲, 讀與犯同.」⁵⁾ (範은 道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형부인 車와 성부인 範이 생략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犯과 같이 받음한다.)

『說文』, 「犯, 侵也, 從犬巳聲.」⁶⁾ (犯은 침범하는 것이다. 형부인 犬과 성부인 巳로 이루어진다.)

『說文』에 따르면 範은 從範省聲이고 犯은 從犯聲이다. 또한 汜은 從巳聲이고

4) 段玉裁, 『段注』, 三篇上, 九. 讀下. 「擬其音曰讀, 凡言讀如讀若, 皆是也. 易其字以釋其義曰讀, 凡言讀爲讀曰, 當爲皆是也.」(그 음에 의거한 것을 ‘讀’이라고 한다. 무릇 ‘讀如’와 ‘讀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러하다. 글자를 바꾸어 뜻을 풀이하는 것을 ‘讀’이라고 한다. 무릇 ‘讀爲’와 ‘讀曰’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모두 그러하다.) 이처럼 擬音 기능이 있는 것은 讀如와 讀若으로, 易字 기능이 있는 것은 讀爲와 讀曰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許慎, 『說文』, 十四篇上, 五十二.

6) 許慎, 『說文』, 十篇上, 三十.

犯 또한 從巳聲이다. 從某聲의 한자는 모두 同音이므로 範과 犯은 同音이다. 이 밖에 古書에서 犯과 範은 通用되어 사용되는 同音假借의 관계이다. 이처럼 『說文』의 일부 讀若은 단순한 擬音이 아니라 字義의 상호 관계가 포함된다. 段玉裁는 範에 대해 다음과 같이 注釋했다.

『不曰讀若犯而曰與同者, 其音義皆取犯. 讀若則但言其音而已.』(『讀若犯』이라 하지 않고 '與同'이라 한 것은 그 자음과 자의를 모두 '犯'에서 취한 것이다. '讀若'은 다만 그 자음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段玉裁는 '讀與某同'에 대해 注音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字音과 字義를 모두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가 이미 讀若 중 일부는 한자의 讀音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字義 파악의 기능인 易字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작용을 '讀與某同'의 형식에만 국한하고 여전히 讀若은 순수한 擬音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字例의 견해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說文』, 「玨, 石之似玉者. 從玉△聲. 讀與私同.」⁷⁾ (玨는 옥과 비슷한 돌이다. 형부인 玉과 성부인 △로 이루어진다. 私와 같이 발음한다.)
『段注』, 「凡言讀與某同者, 亦即讀若某也.」(무릇 '讀與某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讀若某'이다.)

여기서는 '讀與某同'과 '讀若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앞선 字例에서 이들을 분리하여 다루었던 것과는 상호 모순된 견해이다. 또 다른 예로 일부 讀若字의 오류에 대한 段玉裁의 수정 의견을 통해 그의 讀若에 관한 개념을 찾을 수 있다.

『說文』, 「該, 軍中約也. 從言亥聲. 讀若心中滿該.」⁸⁾ (該는 군에서의 약속이다. 형부인 言과 성부인 亥로 이루어진다. '가슴 속이 가득 차다'의 該

7) 許慎, 『說文』, 一篇上, 三十三.

8) 許慎, 『說文』, 三篇上, 三十一.

와 같이 발음한다.)

『說文』에서는 該를 ‘軍中에서 쓰는 약속인 暗號와 같은 것으로 풀이했지만 許慎의 字義 해석의 용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古代 주로 사용되던 該의 字義는 ‘갖추어 완비하는 것’이다. 『楚辭·招魂』의 「招具該備。」(그대 부를 채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에 대한 王逸의 注는 「該, 亦備也。」(該는 또한 ‘갖추다’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該의 後起字는 賅로써 『說文』에는 보이지 않는다.⁹⁾ 따라서 該와 賅는 古今字의 관계이다. 다만 許慎이 ‘該’에 대한 讀若字로 동일한 ‘該’자를 사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段注』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該同餽, 飽息也。」(該는 餽과 같다. 배가 불러 내쉬는 숨이다.)라고 하며 이것은 ‘噫’¹⁰⁾의 字義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段玉裁의 풀이에 따르면 該의 聲符인 ‘亥’는 古哀切의 古音一部에 속하며, 噫의 聲符인 ‘意’는 於介切의 古音一部로 音韻의 관련이 있다. 정리하면 本字인 ‘該’에 대해 字音 및 字義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噫’를 제시하여 許慎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미루어 段玉裁는 讀若이 가지고 있는 擬音과 易字의 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該’는 段玉裁가 제시한 ‘噫’를 이용하여 ‘讀若噫’로 표기하는 것이 讀若의 주기능인 注音은 물론 字義 해석에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字例를 통해 段玉裁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讀若의 擬音 기능만을 인정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며, 讀若字가 가지고 있는 字音과 字義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字例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說文』, 「匱, 亡也. 從匚若聲, 讀若羊騶篋。」¹¹⁾ (匱은 도망치는 것이다. 형부인 匚와 성부인 若으로 이루어진다. ‘양을 모는 이의 채찍’인 篋와 같이 발음한다.)

9) 蘇寶榮, 『說文解字今注』, 100쪽.

10) 許慎, 『說文』, 二篇上, 十五. 「噫, 飽出息也。」(噫는 배가 불러서 내쉬는 숨이다.)라고 하여 일종의 식사 후의 트림과 같은 것으로 풀이했다.

11) 許慎, 『說文』, 十二篇下, 四十七.

匱의 本義는 許慎의 풀이와 같이 ‘도망치다’이다. 도망을 치기 위해서는 몸을 숨겨야 하므로 ‘隱匱’의 引伸義가 생겼고, 惡한 것은 주로 隱蔽하므로 다시 引伸되어 ‘邪惡하다’는 字義도 갖게 되었다. 한편 고대에는 匱과 慝은 서로 통용되었다. 清代 朱駿聲도 『說文通訓定聲』에서 匱에 대해 「字亦變作慝作慝。」(글자가 또한 변하여 慝과 慝이 되었다.)라고 하여 ‘匱’의 ‘감춘다’는 字義에서 ‘慝’의 ‘邪惡하다’라는 引伸義가 생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匱과 慝은 古今字이다.¹²⁾ 다만 許慎이 ‘匱’에 대한 讀若字로 ‘筐’을 사용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段玉裁는 『段注』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此有譌奪，當云‘讀若羊筐鑿之鑿’。金部曰，‘鑿者，羊筐耑鐵也。’說詳金部，鑿讀若至，至古音同質，匱讀若鑿，卽讀若質也。」(이것은 잘못 누락된 것이다. 마땅히 ‘양을 모는 채찍인 鑿과 같이 발음한다’라고 해야 한다. 『설문』 金部에서는 ‘鑿는 끝을 철로 만든 양을 모는 채찍’이라고 하였다. 金部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鑿는 ‘至와 같이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至의 고음은 質과 같다. 匱을 鑿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곧 質과 같이 발음하는 것과 같다.)

『說文』에서 匱의 讀若字를 잘못 수록한 것이 許慎의 착오인지 혹은 후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誤記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段玉裁가 『說文』에 수록된 ‘鑿’¹³⁾의 풀이를 인용하여 讀若字의 오류를 정확히 수정했다는 것이다. ‘도망치다’의 字義를 가지고 있는 ‘匱’에 대한 讀若字로 ‘철로 만든 양을 모는 채찍’의 字義를 가지고 있는 ‘鑿’을 사용한 것은 ‘도망치는 양과 채찍을 들고 뒤쫓다’는 字義의 연관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鑿의 古音を 통해 匱의 字音이 ‘質’과 관련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讀若字가 가지고 있는 擬音 기능 이외에 字義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段玉裁는 『說文』의 注音 형식이 ‘讀與某同’인 경우 讀音 기능 이외에 字義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 洪成玉, 『古今字字典』, 435쪽.

13) 許慎, 『說文』, 十四篇上, 二十三. 本字는 ‘鑿’이고 이것의 譌字는 ‘鑿’이다. 『段注』에서는 譌字의 자형으로 수록했다.

『說文』讀若字에 대한 오류 수정의 예를 통해서도 讀若의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段玉裁가 讀若을 단순한 擬音으로 여기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讀若의 表義 이론

讀若 기능의 字義와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清代의 錢大昕이다. 그는 讀若은 단순히 한자의 字音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通用을 위한 것으로서 經典에서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許君讀若之字, 皆經典通用字.」¹⁴⁾ (허신의 讀若字는 모두 경전에서 통용되는 글자이다.)라는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讀若을 설명했다.

漢人言讀若者, 皆文字假借之例. 不特寓其音, 并可通其字. ……許氏書所云讀若, 云讀與同, 皆古書假借之例, 假其音并假其義, 音同而義亦隨之.¹⁵⁾
(한대 사람들이 말하는 '讀若'은 모두가 글자 가차의 예이다. 특별히 자음에 의하지 않아도 그 글자와 통할 수 있다. ……허신의 자서에서 '讀若'과 '讀與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고서의 가차의 예이다. 자음과 자의를 빌리므로 같은 발음이면 자의 역시 그것을 따르게 된다.)

앞서 段玉裁는 순수한 擬音인 '讀若某'와 다르게 '讀與某同'의 경우 字音과 字義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錢大昕은 이러한 구분 없이 『說文』에 수록된 讀若은 전부가 假借의 일종이라는 주장이다. 즉 讀若字와 被讀若字 사이에는 同音의 字義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讀若의 注音 기능보다 字義의 연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지만 적어도 讀若을 經典의 用字와 관련지은 것은 충분한 참고 가치가 있다.

14)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四, 「說文校譌字」.

15) 錢大昕, 『潛研堂文集』, 卷三, 「古同音假借說」.

3) 讀若의 表音兼表義 이론

表音兼表義 이론의 핵심은 『說文』 讀若은 字音を 밝히는 注音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에 被讀若字와 讀若字 사이에 字義의 연계가 있다는 것이다. 清代의 王筠은 이러한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서 讀若은 단순한 注音法이 아닌 假借와 같은 用字 현상과 연계되어 있는 『說文』 특유의 體例로 여겼다.

注家之例, 云‘讀若’者, 明其音也. 云‘讀爲’者, 改其字也. 『說文』無‘讀爲’者, 逐字爲音, 與說經不同也. 然有第明其音者, 有兼明假借者, 不可一概論也.¹⁶⁾ (주석가들의 예에서 ‘讀若’이라고 한 것은 그 자음을 밝힌 것이고, ‘讀爲’라고 한 것은 그 글자를 바꾼 것이다. 『說文』에는 ‘讀爲’가 없으며 글자에 자음을 적는 것은 이러한 경전 풀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차례에 따라 그 자음을 밝히며 겸하여 가차를 밝히는 것과 하나로 엮어서 논할 수 없다.)

이처럼 王筠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段玉裁와 錢大昕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說文』 讀若에는 순수하게 注音 작용을 하는 「第明其音者」 이외에 注音과 字義를 관련지어 풀이하는 「兼明假借者」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실 ‘讀爲’의 주요한 역할은 經典의 글자를 교체하여 字義를 통하게 하는 易字에 있으며 이것 이외의 기능으로 擬音, 釋義 그리고 擬音兼釋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과 비교하여 ‘讀如’의 주요한 기능은 擬音이며 나머지 易字, 釋義, 擬音兼釋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⁷⁾ 정리하면 이들 ‘讀爲’(또는 ‘讀曰’)과 ‘讀如’(또는 ‘讀若’)은 각자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작용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鄭玄 못지않게 經學에 능통했던 許慎이 사용했던 讀若이라는 용어 역시 표면적인 주기능은 글자의 注音이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인 작용을 할 수

16) 王筠, 『說文釋例』, 卷十一, 「讀若直指」.

17) 張能甫, 「關於鄭玄注釋中“讀爲”“讀如”的再思考」, 66-67쪽. 여기서는 鄭玄注의 실제 사례를 수치로 통계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편 ‘讀曰’의 기능은 ‘讀爲’와 같으며 ‘讀若’의 용법은 ‘讀如’와 유사하다. 따라서 ‘讀曰’과 ‘讀爲’는 하나의 부류로 묶을 수 있으며, ‘讀若’과 ‘讀如’ 역시 동일한 부류로 볼 수 있다.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讀若의 기본 이론은 清代 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근대 이후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의 일반적인 시각은 讀若에는 순수한 注音 이외에 字音과 字義가 연계된 通字 작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許慎이 이러한 字義의 연계성을 의도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讀若의 본래 목적은 순수한 注音에 있으며 假借와 같은 字義의 연계성은 許慎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同音 관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⁸⁾ 사실 許慎이 讀若의 注音 작용과 더불어 通字 기능을 의도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讀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선결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讀若의 字音과 字義의 연계에 대해 과거에는 이것을 주로 假借의 일종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보다 다양한 언어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3. 『說文解字』 讀若과 漢字의 관계

『說文』의 注音法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¹⁹⁾ 먼저 形聲字의 聲符를 사용하여 字音을 읽는 것. 다음으로 聲訓法을 사용하여 讀音을 訓釋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聲符가 形聲字와 기타 글자의 字音을 대표하지 못할 때 讀若이나 經典의 인용 혹은 俗語 등의 방법으로 讀音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𦉳, 呼雞重言之, 從𦉳從州聲, 讀若祝。」²⁰⁾ (𦉳는 닭이 우는 소리를 빗댄 것이다. 형부인

18) 陸志韋, 『說文解字讀若音訂』, 141-143쪽. 「蓋假借明音, 二者本不背道而馳. 明音者, 許君之本旨. 古者依聲託事, 凡字之同音者無不可爲假借. ……然則假借者非許書之本意, 許君初不欲寓假借於讀若, 隨音釋字, 而假借在所不免耳.」 (대개 가차와 주음 두 가지는 본래 서로 길을 등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주음은 허신의 본의이다. 과거에는 소리에 의거하여 사물을 기탁하여 무릇 동음의 글자는 가차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가차는 허신 자서의 본의가 아니다. 허신은 애당초 '讀若'에 가차를 대입시킬 생각이 없었지만 자음에 따라 글자를 해석하다 보니 가차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19) 章季濤, 『怎樣學習說文解字』, 79쪽.

20) 許慎, 『說文』, 二篇上, 三十.

卍과 성부인 卍로 이루어진다. 祝와 같이 발음한다.)와 같이 어려운 僻字의 讀音을 위해 讀若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일부 形聲字는 字形의 풀이 과정에서 聲符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지만 다시 讀若으로 注音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佞, 立也. 從人豆聲. 讀若樹。」²¹⁾ (佞는 세우는 것이다. 형부인 人과 성부인 豆로 이루어진다. 樹와 같이 발음한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讀音과 聲符가 일치하지 않아 讀若으로 실제음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미 검증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讀若은 字音과 字義의 연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략 清代까지는 讀若字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언어 작용으로 주로 假借가 언급됐지만, 그 이외에 古今字, 同源字, 異體字, 通假字 등의 현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 가운데 이하의 내용에서는 讀若과 古今字와의 관계를 특정하여 漢字 발전 과정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古今字는 古今의 字義를 구별하고 동시에 本字인 古字의 부담을 덜기 위해 本字에 기초해 새로운 今字를 만드는 것이다. 讀若은 字音을 표시하는 擬音 기능 이외에 易字²³⁾와 釋義 등의 부가적인 작용을 동반한다. 그 가운데 易字의 역할에는 通假字 이외에 古今字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讀若의 형식을 통해서도 순수한 注音과 易字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讀若某’와 ‘讀若某某之某’ 등은 순수하게 擬音한 것으로 本字와 讀若字 사이에는 대부분 字音 관계만 존재한다. 반면 ‘讀若某同’과 ‘讀與某同’ 등은 字音 이외에 字義의 연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주로 발견 된다.²⁴⁾ 鄭玄과 같은 漢代 經學家들은 今字로 古字를 注釋할 때 ‘讀爲’나 ‘讀如’와 같은 易字의 體例를 사용했지만 清代 段玉裁는 『段注』에서 古今字에 대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1) 許慎, 『說文』, 八篇上, 十八.

22) 馮玉濤, 『說文解字』讀若作用類考, 13-21쪽.

23) 傅定森, 『訓詁術語札記』, 85쪽. 易字의 역할은 通假의 이치와 같이 당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글자를 가지고 생소하거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다.

24) 오제중, 『說文解字』讀若考, 234-235쪽.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說文』에서는 ‘讀若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字義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字例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許慎은 讀若의 형식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古今字는 古今의 시간의 차이에 따른 일종의 同詞異字 현상이므로 단순히 字音의 연계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讀爲와 讀如는 古今字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순수한 注音符 또는 通假 등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段玉裁는 古今字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漢代 經學家들이 讀爲와 讀如 등을 사용하여 古字를 풀이했던 것은 古今字 사이에는 일정한 語音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 段玉裁 역시 古今字의 語音上的 연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²⁵⁾ 지금까지 段玉裁는 讀若의 注音符 기능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앞서 검증한 바와 같이 실상은 讀若의 字音과 字義의 연계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古今字 사이에는 同音 관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인 同音 관계의 古今字와 『說文』에 수록된 讀若字를 통해 찾을 수 있는 古今字 사이의 관련성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讀若과 古今字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古今字는 漢代 經學家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문헌상으로는 동일한 어휘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異形의 글자로 표기되는 현상이다. 清代 王筠이 언급한 分別文²⁶⁾은 바로 이러한 古今字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分別文은 글자의 派生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古今字는 문헌에서의 글자 활용과 관련되어 주로 文字와 語彙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分別文과 今字는 모두 古字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므로 分別文과 古今

25) 段玉裁, 『段注』, 二篇上, 三. 余下. 「凡言古今字者, 主謂同音, 而古用彼今用此異字。」(무릇 고금자라는 것은 주로 같은 발음하면서 예전에는 저 글자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이 글자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글자를 말한다.) 古今字의 성립 기준으로 같은 발음의 同音字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同音字로 注音符를 하는 讀若字와 古今字 사이에는 일정한 성립 조건을 공유하게 된다.

26)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一. 「字有不須偏旁而義已足者, 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 其加偏旁而義遂異者, 是爲分別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別之者也. 一則本字義多, 既加偏旁, 則祇分其一義也。」(편방이 더해지지 않아도 의미가 이미 충분한 글자에서 그 편방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 더해진 것이다. 이처럼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分別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의가 가차의에 빼앗겨 편방을 더해 그것과 구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글자의 의미가 여럿이라 편방을 더해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다.)

字의 공통점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古字와 今字는 字形의 관련뿐만 아니라 字義의 계승은 물론 字音 역시 일치한다. 특히 字形 간의 同音 여부는 古今字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讀若字와 被讀若字의 성립 조건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가지 언어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으로 인해 『說文』 讀若字에서도 古今字의 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讀若의 注音 작용과 더불어 字形과 字義 간의 通字 기능을 만일 許慎이 의도한 것이라면 古今字의 字音이 서로 동일한 점에 착안해 이를 활용해서 讀若字의 字音을 표기한 것이다. 漢代 經學家들이 讀爲나 讀如의 방식으로 古字를 해석하는 것은 古今字는 字音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段玉裁 역시 이러한 古今字의 語音上的 연계에 주목했는데 그가 판단하는 古今字는 시기적으로 글자 사용의 다름으로 인한 同詞異字 현상이다. 따라서 그는 古今字 사이에는 音韻의 관련이 있으며 서로 다른 자형의 글자도 일정한 音韻上的 연관이 있으면 字義의 연관 여부와 관련 없이 古今字로 판단했다. 즉 古今字는 자형은 다르지만 音韻上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와 같은 古字와 今字의 字音의 연관성은 讀若字와 被讀若字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段玉裁가 제시한 古今字의 성립 기준을 따른다면 『說文』 讀若字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古今字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²⁷⁾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실제 字例를 통해 讀若과 古今字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讀若은 經典에서의 字義 파악을 위한 字音과 字義 간의 通字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古今字 역시 經典에서 今字로 古字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언어 현상의 비교를 통해 讀若의 실제 파악은 물론 漢字 발전과의 상관 영역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7) 王筠과 段玉裁의 古今字 이론에 관해서는 오제중, 「王筠의 古今字 이론 연구 - 分別文과 累增字를 위주로」와 「段玉裁 『說文解字注』의 古今字 이론 고찰」을 참고할 수 있다.

4. 『說文解字』 讀若의 字例 분석

(1) 彝-鐙

『說文』, 「彝, 禮器也. 從卪持肉在豆上. 讀若鐙同.」²⁸⁾ (彝은 제사에 쓰는 그릇이다. 두 손으로 고기를 받들어 제기 위에 올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鐙과 같이 발음한다.)

『段注』, 「『釋器』『毛傳』皆曰, 瓦豆謂之登.」(『釋器』와 『毛傳』에서는 흙으로 만든 제기를 모두 '登'이라고 하였다.)

『說文』, 「鐙, 錠也. 從金登聲.」²⁹⁾ (鐙은 제사에 쓰는 그릇이다. 형부인 金과 성부인 登으로 이루어진다.)

『段注』, 「然則瓦登用於祭天, 廟中之鐙. 范金爲之, 故其字從金.」(그런 즉 흙으로 만든 제기 瓦登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한다. 사당에서 사용하는 제기인 鐙은 쇠를 주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글자는 편방이 金으로 이루어졌다.)

『說文』에서는 「登, 上車也. 從卪豆. 象登車形.」³⁰⁾ (登은 수레에 오르는 것이다. 卪과 豆로 이루어진다. 수레에 타는 것을 형상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許慎은 登의 本義를 수레에 오르는 것이라 했지만 甲骨文과 金文 등을 살펴보면 그의 풀이는 정확하지 않다. 도리어 祭器인 '豆'를 받쳐 들고 계단에 올라 신에게 공손히 바치는 것이라는 설이 좀 더 합리적이다.³¹⁾ 그리고 후에 여기서 '오른다'라는 引伸義를 갖게 되었다.³²⁾ 한편 『爾雅·釋器』에서는 「木豆謂之豆, 竹豆謂之筩, 瓦豆爲之登.」(나무로 만든 제기는 豆라 하고, 대나무로 만든 제기는 筩이고, 흙으로 만든 제기는 登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登'은 祭器의 일종이다. 결국 禮器인 '登'의 本字는 '彝'이고, 祭器를 '받들어 올린다'는 '登'은 그것이 바로 本字이다. 따

28) 許慎, 『說文』, 五篇上, 三十九.

29) 許慎, 『說文』, 十四篇上, 七.

30) 許慎, 『說文』, 二篇上, 四十.

31)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61쪽.

32) 段玉裁, 『段注』, 二篇上, 四十. 登下. 「引伸之, 凡上陸曰登.」(여기서 인신되어 무릎 위로 오르는 것을 登이라고 한다.)

라서 이들 彝과 登은 본래 서로 다른 二字二義의 관계이지만 후에 하나의 글자로 합쳐진 것이다.³³⁾ 정리하면 『說文』에서는 당시 祭器의 字義로 습관적으로 사용 하던 今字인 ‘鐙’을 讀若字로 사용하여 古字인 ‘彝’(登)의 字義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本字인 彝은 會意字로 字音 파악이 쉽지 않아 形聲字이면서 讀若字인 鐙을 사용하여 注音하였으며, 또한 本字는 常用字가 아니므로 讀若字를 통해 비교적 쉽게 字義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讀若字를 통해 字音과 字義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讀若字인 ‘鐙’과 本字인 ‘彝’(登)은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2) 員-圓

『說文』, 「圓, 圓全也. 從口員聲. 讀若員.」³⁴⁾ (圓은 온전한 것이다. 형부인 口와 성부인 員으로 이루어진다. 員과 같이 발음한다.)

『段注』, 「圓者, 天體. 天屈西北而不全. 圓而全則上下四旁如一, 是爲渾圓之物.」(圓은 천체이다. 하늘은 서쪽과 북쪽이 굽어 완전하지 않다. 온전한면 위아래와 사방이 하나처럼 되어 혼연히 온전한 것이 된다.)

『說文』, 「員, 物數也. 從貝口聲. 凡員之屬皆從員.」³⁵⁾ (員은 물건을 세는 것이다. 형부인 貝와 성부인 口로 이루어진다. 무릇 員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員으로 이루어진다.)

『段注』, 「本爲物數. 引伸爲人數. 俗稱官員. ……數木曰枚, 曰梃, 數竹曰箇, 數絲曰紕, 曰總, 數物曰員.」(본의는 물건을 세는 것이다. 인신되어 사람을 세는 것이 되어 속칭 官員이라 한다. ……나무를 세는 것은 枚와 梃이고, 대나무를 세는 것은 箇이고, 실을 세는 것은 紕와 總이고, 물건을 세는 것은 員이다.)

『說文』과 『段注』에서는 員의 本義를 물건을 세는 計量의 단위라고 하였다. 하지만 員의 本義는 圓으로 등글다는 뜻이며 물건을 세는 「物數也」는 本義와 무관

33) 蘇寶榮, 『說文解字今注』, 61쪽.

34) 許慎, 『說文』, 六篇下, 十.

35) 許慎, 『說文』, 六篇下, 十四.

한 假借義이다. 員의 甲骨文과 金文은 ‘從鼎從○’의 구조이다. ○은 ‘圓’의 象形文이며 鼎으로 意符를 삼은 것은 靑銅器인 鼎은 대부분 둥근 형상의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員의 『說文』 籀文 역시 從員가 아닌 從鼎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說文』에서는 圓의 本義를 온전한 圓球의 형상이라고 했지만 『段注』를 통해서 圓의 本義는 현재와 같은 ‘둥근 것’과는 다른 ‘온전하게 결합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자 발전의 단계로 보아 員은 古字, 圓은 今字가 되어 古今字를 이루게 된다.³⁷⁾ 여기서 주목할 점은 『說文』의 圓에 대한 「從口員聲」의 자형 풀이로 보아 許慎은 이미 圓이 從員의 聲符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讀若員’으로 중복하여 注音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讀若은 주기능인 注音 이외에 字義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許慎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聲符를 활용해서 讀若字로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秝-歷

『說文』, 「秝, 稀疏適秝也. 從二禾, 凡秝之屬皆從秝, 讀若歷.»³⁸⁾ (秝은 드물게 늘어진 것이 역력한 것이다. 두 개의 禾로 이루어진다. 무릇 秝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秝으로 이루어진다. 歷과 같이 발음한다.)

『段注』, 「『玉篇』曰, ‘稀疏秝秝然’. 蓋凡言歷歷可數, 歷錄束文, 皆當作秝. 歷行而秝廢矣.」(『옥편』에서는 ‘드물게 늘어서 역력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분명하게 알 수 있다’(歷歷可數)와 ‘차례로 아름다운 문장을 엮는다’(歷錄束文)라고 하는 것은 모두 ‘秝’으로 적어야 한다. ‘歷’은 유행하였지만 ‘秝’은 폐지되었다.)

『說文』, 「歷, 過也, 傳也. 從止秝聲.»³⁹⁾ (歷은 지나는 것이다, 전하는

36)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2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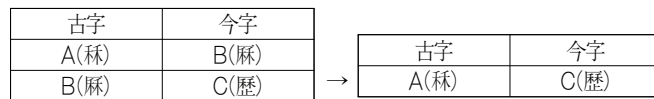
37) 이와 같이 대다수 古今字는 古字에 기초하여 今字를 만들지만 通假字는 本字와 이러한 造字 계승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通假字는 本字의 字形과 중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員과 圓의 관계를 通假字로 보는 견해도 있다.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943쪽.

38) 許慎, 『說文』, 七篇上, 五十五.

39) 許慎, 『說文』, 二篇上, 四十.

것이다. 형부인 止와 성부인 厯으로 이루어진다.)

‘秝’은 벼의 묘인 禾苗가 밭에서 드문드문 균일하게 늘어선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本義는 ‘뚜렷하고 분명하다’이다. 이러한 ‘秝’은 ‘歷’의 本字로써 ‘분명하다’라는 뜻의 ‘歷歷하다’의 字義와 같으며⁴⁰⁾ 지금은 이와 같은 秝을 歷으로 적는다. 또한 『說文』에 따르면 「厯, 治也.」⁴¹⁾ (厯은 바로잡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段注』는 「厯者, 調也. 按調和, 卽治之義也.」 (厯은 어울리는 것이다. 조화는 곧 바로잡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앞서 인용한 歷의 本義는 經歷, 經過로써 『說文』에서는 ‘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의 日月星辰의 경과와 運行을 보고 날짜와 節氣를 추정하는 것도 ‘歷’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引伸되어 曆法, 曆書의 字義를 갖게 되었다. 한편 『說文』에는 ‘曆’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今字인 ‘曆’은 古字인 ‘歷’의 義項(의미 갈래)에서 曆法, 曆書 등의 字義를 분담하였다.⁴²⁾ 따라서 歷과 曆 역시 古今字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내용을 종합하면 분명하게 늘어서 하려면 조화롭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本字인 ‘秝’에서 引伸되어 後起字인 ‘厯’이 등장했다. 또한 조화롭게 바로잡으려면 과정이 필요하므로 다시 引伸되어 역시 後起字인 ‘歷’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秝과 厯은 古今字이며, 厯과 歷도 古今字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때 厯은 이처럼 경우에 따라 古字 또는 今字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古今字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先後 관계에 따른 상대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즉 古今字인 A(秝)-B(厯)와 B(厯)-C(歷)의 관계에 의해 A(秝)-C(歷)의 古今字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本字인 秝과 讀若字인 歷은 古今字이

40) 蘇寶榮, 『說文解字今注』, 253쪽.

41) 許慎, 『說文』, 九篇下, 二十.

42) 洪成玉, 『古今字字典』, 257쪽.

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古今字 員과 圓은 讀若字인 員과 本字인 圓의 관계이다. 반면 古今字 秝과 歷은 本字인 秝과 讀若字인 歷의 관계이다. 이로써 古字 또는 今字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讀若字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烈-颯

『說文』, 「颯, 颯颯也. 從風烈聲. 讀若烈.」⁴³⁾ (颯은 바람이 사나운 것이다. 형부인 風과 성부인 烈로 이루어진다. 烈과 같이 받음한다.)

『說文』, 「烈, 火猛也. 從火列聲.」⁴⁴⁾ (烈은 불길의 사나운 것이다. 형부인 火와 성부인 列로 이루어진다.)

烈의 本義는 불길이 맹렬한 것으로 여기서 引伸 되어 바람이 매섭다는 字義도 갖게 되었다. 颯의 本義는 매서운 바람이다. 하지만 先秦 시기 문헌에서는 颯의 사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나운 바람의 字義를 대신 烈로 표시하였다. 烈이 불길이 맹렬하다는 字義에서 바람이 매섭다는 字義로 引伸된 것은 대략 東漢 시기로 이 무렵 烈의 편방인 灊(火)가 風으로 변했다.⁴⁵⁾ 이로써 새롭게 颯자를 만들어 烈이 가지고 있던 바람이 매섭다는 字義를 분담하였다. 정리하면 맹렬한 바람의 字義를 가지고 있는 古字는 烈이고 今字는 颯이다. 따라서 讀若字인 烈과 颯은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5) 馮-凭

『說文』, 「凭, 依几也. 從任几. 周書曰, 凭玉几. 讀若馮.」⁴⁶⁾ (凭은 기대는 안석(案席)이다. 任과 几로 이루어진다. 『주서』에서는 '옥 안석에 기댄

43) 許慎, 『說文』, 十三篇下, 八.

44) 許慎, 『說文』, 十篇上, 四十一.

45) 洪成玉, 『古今字字典』, 267쪽.

46) 許慎, 『說文』, 十四篇上, 二十八.

다'라고 하였다. 馮와 같이 발음한다.)

『段注』, 「依者, 倚也. 凭几亦作馮几, 假借字. …… 『顧命』文, 今『尚書』作憑, 衛包所改俗字也. 古假借祇作馮, 凡馮依皆用之。」(依는 기대는 것이다. 凭几⁴⁷⁾는 馮几로도 적을 수 있으며 가차자이다. …… 『상서·고명』의 글을 금문 『상서』에서는 '憑'으로 적었는데 衛包가 속자로 고친 것이다. 과거에는 가차하여 '馮'으로 적어서 무릇 기대는 것은 모두 그것을 사용했다.)

『說文』, 「馮, 馬行疾也. 從馬 冫聲」⁴⁸⁾ (馮은 말이 빠르게 달리는 것이다. 형부인 馬와 성부인 冫으로 이루어진다.)

『段注』, 「或假爲凭字, 凡經傳云馮依, 其字皆當作凭. ……俗作憑, 非是。」(혹은 '凭'으로 가차된다. 무릇 경전에서 '기대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의 글자는 모두 '凭'으로 적어야 한다. ……속자로 '憑'으로 적는 것은 옳지 않다.)

許慎의 풀이에 따르면 馮의 本義는 '말이 질주하는 것'이지만 先秦시기 馮자를 借用하여 기대어 의지한다는 凭의 字義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馮이 걸어서 물을 건넌다는 '徒涉'과 姓氏 등의 字義로 사용되자 漢代 무렵 馮에 偏旁 心을 더한 '憑'자를 새롭게 만들어 원래 馮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어 의지한다'라는 字義를 분담하였다. 凭는 '從任几'의 會意字이다. 여기서 任은 '말기다'는 뜻이며 几는 '안석'이므로 이것으로부터 기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字義를 갖게 되었다. 정리하면 '기대어 의지한다'라는 字義를 위해 先秦시기 馮을 빌려 사용했으며 이후 漢代에 동일한 字義를 갖는 凭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몸을 기대어 의지한다는 字義의 古字는 馮이고 今字는 凭이다. 따라서 讀若字인 馮과 凭은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憑은 馮에 偏旁 心을 더해 새롭게 만들어진 今字이고, 憑은 기대어 의지하는 것인 '안석' 几를 강조한 形聲字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용 시기로 나누게 되면 馮은 古字이고 나머지 憑, 凭, 憑은 모두 今字인 古今字 관계를 갖게 된다.⁴⁹⁾ 한편 일부는 段玉裁의 의견을 따라 馮과 凭은 本字가 있는 假借의 관계이

47) 凭几는 古代에 몸을 기대는 것으로 사용했던 家具의 일종이다.

48) 許慎, 『說文』, 十篇上, 十二.

49) 洪成玉, 『古今字字典』, 333쪽.

며 憑을 俗字로 보기도 한다.⁵⁰⁾ 결론적으로 馮와 凭의 관계가 古今字 또는 假借 중 어느 것이 성립되어도 이들 本字와 讀若字 사이에는 순수한 注音符 이외에 문헌 상의 字義의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6) 丁-阬

『說文』, 「阬, 丘名. 從阜丁聲, 讀若丁。」⁵¹⁾ (阬은 언덕의 명칭이다. 형부인 阜와 성부인 丁으로 이루어진다. 丁과 같이 발음한다.)

『說文』, 「丁, 夏時萬物皆丁實, 象形, 丁承丙, 象人心. 凡丁之屬皆從丁。」⁵²⁾ (丁은 여름철 만물이 모두 긴장하게 결실을 맺는 것이다. 상형이다. 丁은 丙을 이으며 사람의 마음과 같다. 무릇 丁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丁으로 이루어진다.)

『段注』, 「丁實, 小徐本作‘丁壯成實’. 律書曰, ‘丁者, 言萬物之丁壯也.’ (丁實을 소서본에서는 ‘丁壯成實’이라고 하였다. 『율서』에서는 ‘丁은 만물이 긴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丁의 本義에 대해 許慎과 段玉裁 모두 丁壯(긴장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甲骨文과 金文 등에 따르면 ‘丁’은 못대가리인 釘頭의 형상으로 ‘釘’의 初文이다.⁵³⁾ 이후 先秦에서 兩漢 시기까지 이것을 假借하여 天干의 글자로 사용했다. 따라서 許慎이 陰陽五行說로 丁의 字形과 字義를 풀이한 것은 옳지 않다. 『說文』에서는 「釘, 鍊鉞黃金, 從金丁聲。」⁵⁴⁾ (釘은 제련한 황금 덩어리이다. 형부인 金과 성부인 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釘’을 지금과 같은 ‘못’의 의미로 풀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段注』에서는 「今人用此字, 則古鑿之義也。」(지금 사람들은 이 글자를 예전의 鑿(못)의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는 「鑿, 可以綴

50) 李國英, 『說文類釋』, 394쪽. 「凭凡之凭或假馮爲之, 俗又或作憑, 而字不見載于『說文』。」(凭凡의 凭은 혹은 馮으로 가차된다. 속자로는 憑으로 적지만 그 글자는 『說文』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1) 許慎, 『說文』, 十四篇下, 十.

52) 許慎, 『說文』, 十四篇下, 二十.

53)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580쪽.

54) 許慎, 『說文』, 十四篇上, 三.

箸物者。」⁵⁵⁾ (鑿은 물건이 붙게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段注』에서도 「鑿所以琢箸裏, 按今謂釘者皆是。」(鑿[못 잡]은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물체와 이어주는 물건으로 지금의 釘[못 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初文인 丁은 商代에 이미 등장했으며, 釘은 鑿과 같은 ‘못’의 字義를 가지고 대략 魏晉 무렵부터 사용되었다. 따라서 丁과 釘은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한편 阌은 『說文』과 『康熙字典』을 비롯한 字書에서 字義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수록되지는 않았다. 다만 『說文』에서는 「丘, 土之高也。」⁵⁶⁾ (丘는 흙이 높게 쌓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못’의 字義가 있는 ‘丁’은 길게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으며 ‘언덕’의 字義가 있는 ‘阌’ 역시 땅이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정한 字義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阌’은 ‘丁’을 편방으로 삼고 있는 後起字이므로 시기적으로 先後의 관계이다. 한편 許慎은 阌의 구조를 「從阜丁聲」이라고 하여 聲符가 ‘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글자인 ‘丁’으로 讀若字를 삼았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注音符이 아니라 字形과 字義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讀若字인 丁과 本字인 阌은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5. 結論

『說文』에 수록된 讀若은 표면적으로는 被讀若字의 字音を 정확히 밝히는 것이 주기능이지만 清代의 학자들은 이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字形과 字義와의 연계 작용에 주목하였다. 漢字는 字形과 字音 그리고 字義의 결정체이므로 讀若字를 통해 이들의 유기적인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讀若에는 字音を 표기하기 위한 注音符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經典에 수록된 文字와 字義의 소통을 위한 通字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經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許慎은 同音 관계의 讀若을

55) 許慎, 『說文』, 十四篇上, 十二.

56) 許慎, 『說文』, 八篇上, 四十四.

통해 文字가 가지고 있는 字義와의 연계성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讀若字의 선정 과정에서 의도한 것인지, 또는 注音符號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체득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讀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清代 이후 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表音이나 表義 이론과 같이 어느 하나의 잣대로 讀若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清代 학자들의 讀若 이론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再考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段玉裁는 讀若의 表音 이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본고의 검증을 통해 그가 讀若이 가지고 있는 字形과 字義의 通字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說文』 연구의 발전에 따라 讀若字는 古今字를 비롯해 通假字, 異體字, 同源字 등의 언어 현상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 가운데 古今字는 古今의 字義를 구별하기 위해 탄생한 동일 어휘에 대한 異形의 글자 형식이다. 특히 字形 간의 同音 여부는 古今字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讀若字의 성립 조건이다.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해 『說文』의 讀若字에서도 古今字의 예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讀若과 漢字 발전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說文』의 讀若은 다양한 언어 현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說文』 讀若의 본래 용도는 字音의 擬音이므로 이러한 주기능을 기반으로 경우에 따라 字形 및 字義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마디로 讀若은 音韻學을 비롯한 文字學 및 訓詁學 영역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說文』의 주요 體例이다. 따라서 古今字와 연계된 字例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讀若字는 古字로부터 後起字인 今字로의 한자의 발전 과정은 물론 經典에서 문자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訓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清,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上海中華書局據潛研堂本校刊.
清, 錢大昕, 『潛研堂文集』, 上海涵芬樓景印潛研堂全書本.

- 清, 王筠, 『說文釋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李國英, 『說文類釋』, 臺北: 書銘出版公司, 1989.
- 章季濤, 『怎樣學習說文解字』, 臺北: 群玉堂出版公司, 1992.
-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8.
- 洪成玉, 『古今字』, 北京: 語文出版社, 1998.
- 蘇寶榮, 『說文解字今注』,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0.
-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北京: 作家出版社, 2005.
-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北京: 中華書局, 2013.
- 洪成玉, 『古今字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3.
- 陸志韋, 「說文解字讀若音訂」, 『燕京學報』第30期, 1946.
- 馮玉濤, 「『說文解字』讀若作用類考」, 『寧夏大學學報』第18卷, 第3期, 1996.
- 張能甫, 「關於鄭玄注釋中“讀爲”“讀如”的再思考」, 『古漢語研究』第3期, 1998.
- 傅定森, 「訓詁術語札記」, 『洛陽師範學院學報』第1期, 2003.
- 楊宏, 「『說文』讀若性質研究綜述」,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第20卷, 第1期, 2004.
- 오제중, 「『說文解字』讀若考」, 『중국언어연구』 제20집, 2005.
- 오제중, 「王筠의 古今字 이론 연구 - 分別文과 累增字를 위주로」,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
- 오제중, 「段玉裁 『說文解字注』의 古今字 이론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73집,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huowenjiezi Duruo*
and Chinese Character

Oh, Jae-jo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huowenjiezi Duruo* and Chinese characters. *Shuowenjiezi*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to analyze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Duruo* is the only Chinese characters pronunciation method recorded in *Shuowenjiezi*. This allows us to analyze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of Han dynasty. After Xushen used the method of *Duruo* in *Shuowenjiezi*, through Qing dynasty, there are three kinds of opinions about *Duruo* so far. First, *Duruo* is to display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second *Duruo* is meant to represent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Judging from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Duruo* has both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Gujinzi* was created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s of the past and present Chinese characters. Especially,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is an important condition to judge *Gujinzi* and *Duruo*. Because of this commonality, *Gujinzi* can be found in *Shuowenjiezi Duruo*. In conclusion, *Shuowenjiezi Duruo* is related to various linguistic phenomena. Therefore, *Duruo* can be used to study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 developmen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Key words: *Shuowenjiezi*, *Duruo*, *Gujinzi*, Chinese characters, Qing dynasty

이 논문은 2019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